

## 0924(토) 하박국 1-3장 더딜지라도 기다리라

하박국은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,  
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진 선지자입니다.  
하박국은 지도층의 난폭함과 무정함, 바벨론의 부상에 대해  
답답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질문합니다.

(1:2-4, 12-17, 왕하24:4, 렘22:13-19 참고)

그럼에도 하박국은 확고한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.  
하나님의 존재와 능력, 주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 
왜 강포/패역/점탈/강포/변론/분쟁/악인에 침묵하시는가,  
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가를 묻은 것입니다(1장).  
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하셨습니다(1:5, 2:2).

지금은 선포-성취의 <중간기>입니다(in the meantime).  
<아직>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되어가는 시간입니다.  
바른 신앙을 가졌음에도 고난/궁핍/역경에 처하는 것은  
<아직>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 
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(2:3).

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(1:5-11).  
그러나 바벨론도 자기 악으로 인해 삼판 당할 것입니다(2장).  
<쓰임 받는 것>이 꼭 <의롭다, 인정받았다>는 아닌 것입니다.  
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끝까지 봐야하며(2:4, 20),  
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(2:4).

하나님과 그분의 계획, 의지를 확인한 하박국은  
더 이상 질문 하거나 답을 얻는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.  
다만 신뢰와 인내로 <중간기>를 살아가리라 기도합니다(3장).  
비록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/소출/양/소가 없을지라도  
힘이신 여호와,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입니다(3:17-18).

나는 믿음으로 <중간기>를 살아가고 있습니까?

- ❶ 더딜지라도 되어가고 있으며, 반드시 응할 것을 믿습니까?
- ❷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며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하박국 1-3장

업로드 자료 ❶ <BIBLE PROJECT 성경개관> [하박국 개요 Habakkuk - YouTube](#)